

## “건설업 특성 반영...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 대한건설협 국회에 건의서 전달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줄 것 등을 주장해 왔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장기사

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혼란이 커지고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며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